

시론

폼페이오의 ‘빈손’ 귀환… 우려되는 北 비핵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7월 6~7일 평양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북·미 고위급 회담을 갖고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회담 후 북한 측과 비핵화 시간표 설정·검증 등과 관련한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북한은 그가 떠나자마자 마치 뒤통수를 치듯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일방적·강도적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 실로 유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협상이)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이번 회담은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처음 열린 고위급 접촉이다. 계획대로라면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간의 합의한 사항을 토대로 비핵화 이행 로드맵이 도출돼 ‘완전한 비핵화’가 어느 정도는 구체화 됐어야 했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을 만나지도 못하고 빈손으로 평양을 떠났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태도가 여전히 실망스럽고 과연 비핵화의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워싱턴 정가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불꽃 터지듯 나오고 있다. 북한이 과거처럼 비핵화 협상을 한다면서 핵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한·미는 연합훈련을 중단하면서까지 북한의 본격적인 비핵화 이행을 기다렸다. 그런데 북한은 미군 유해 송환이나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쇄 같은 주변 문제만 거론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7월 8일 도쿄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 요구가 강도 같으면 전 세계가 강도다”라며 앞선 북한의 비난 성명을 일축했다. 그리고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침 지난 7월 7일 해리 해리스 신임 주한 미국대사가 부임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다시 한 번 약속했다. 멀고 먼 북한 비핵화의 지름길은 역시 한·미동맹일 뿐임을 절감시켜 준다.

초·중등학교 교과서 ‘자유’ 삭제 반대
의견서 교육부 제출

자총은 7월 12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본부 및 세종·충남지부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반대하는 회견을 가졌다. 이날 참가자들은 자총 핵심회원 10만 명의 서명을 담은 검토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자총은 지난 6월 22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행정 예고한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의 ‘자유민주

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헌법적 가치를 담아내야 하는 학교 교육의

기본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면 ‘중·고교 역사 교과서 개정안’ 행정 예고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본부 직제개편 및 인사이동

2실 3본부 1원체제… 팀을 처로 격상

본부는 6월 27일 내부 분위기 쇄신과 변화역량 강화를 위해 박종환 총재 취임 이후 첫번째 직제개편과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먼저 총재 직할로 비서실과 감사실을 설치하고 기획본부 아래 기획처와 홍보처, 조직본부에 조직관리처와 조직지원처,

행정본부에 총무처와 재무처, 자유연구원에 연구처와 교육처를 두었다.

이번 직제개편에선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유관단체와의 대외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팀을 처로 격상하고 본부인원에 대한 보직변경을 시행했다.

유엔글로벌컴팩트 포럼

자총 실무자 참석… 최신 동향 파악 등

조재완 조직관리처 과장이 7월 6일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 빌딩 회의실에서 열린 ‘유엔 글

로벌컴팩트 사회책임경영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최신 동향 포럼’에 참석했다.

박성용
자유연구원장 임명

자총은 7월 16일 박성용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연구교수를 자유연구원 원장으로 임명했다.

이어 강명도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과 교수를 자유연구원 부원장(비상근)으로 위촉했다.



7~8월 지방조직 주요 활동계획(7.17~8.14)

지부	사업명	일자	장소	인원
서울	독거노인 삼계탕 나눔잔치(강서구)	7.17	방화경로당	30명
	안보현장 탐방(강남구)	7.24	강화 통일전망대	45명
	안전의식 제고 캠페인(동대문구)	7.25	청량리역 광장	200명
부산	청소년 민주시민교육(시지부)	7.17	유락여자중학교	676명
	독도사진 전시회(해운대구)	7.20	송정해수욕장	3000명
	해수욕장 운영(서구)	7~8월	송도해수욕장	1000명
대구	사랑의 밑반찬 나눔(서구)	7.18	서구통합치매센터	15명
	돛자리축제 음료봉사(남구)	7.28-29	신천둔지 일원	100명
인천	화장실 물가 집중단속(연수구)	7.26	관내 공원화장실	45명
광주	청소년 선도캠페인(북구)	7.28	문흥지구 일대	12명
대전	안보현장 견학(대덕구)	7.29	제3땅굴	45명
울산	해진원 봉사(울주군)	7.27	해진원	20명
세종	제15회 전국고교생토론대회 예선(시지부)	7.27	조치원여자중학교	50명

지부	사업명	일자	장소	인원
경기	위령탑 제초작업(남양주시)	7.20	와부읍 수동면	30명
	평화통일기원 ‘달빛기행단’ 활동(용인시)	7.27	용인현충탑	100명
강원	어르신 목욕 및 말벗 봉사(고성군)	7.26	수성주간복지센터	15명
	독거노인 반찬 봉사(횡성군)	7.28	관내 독거노인 가구	8명
충북	행복홀씨 입양사업(음성군)	7.19	설성공원	35명
	환경정화활동(진천군)	7.29	백곡천 둔치	30명
충남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 활동(아산시)	7.25	온양온천역내	10명
	환경정화활동 및 단합대회(천안시)	7.31	광덕계곡 일대	45명
전북	지평선 프로미활동(김제시)	7.28	대한민국마트 일대	20명
전남	사랑의 밥차 봉사(목포시)	7.31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	30명
경북	제55회 자유수호웅변대회 예선(도지부)	7.26	다부동전적기념관	30명
경남	자유산악회 정기산행(의령군)	7.21	속리산	50명
제주	환경정화 캠페인(제주시)	7.27	제주공항 둘레길	10명